

대전→광주 전파 방문판매 집단 감염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채 대화·장시간 체류 집단발병사례...27명이 114명에 전파·확산

광주광역시 방문판매업체 관련 '코로나19' 집단발병사례는 직접 방문 확진자 27명이 114명에게 전파하면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시작점은 대전 지역 방문판매로 방역당국이 파악했다.

대규모 확산 이유는 주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게 최대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밀접하고 빈번한 소규모 모임을 통해 종교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사우나, 학원, 통신사대리점 등으로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광주 방문판매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4일 0시 기준 14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문판매 방문자는 27명이었고, 이를 통한 추가 감염자가 11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은 101명으로, 현재까지 누적 위·중증환자 5명, 사망자는 없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대전 방문판매 '101세홈닥터'에서 시작됐다. 이후 광주 방문판매 모임에서 27명이 감염됐고, 불교 사찰인 광복사에서 관련 확진자 14명이 발생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전 방문판매 감염 사례가 수도권에서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수도권→대전→광주'로 전파된 셈이다.

또 광주 방관모임에서 한 교회(21명)로 바이러스가 전파됐고 후대본 매장 T월드(7명)로 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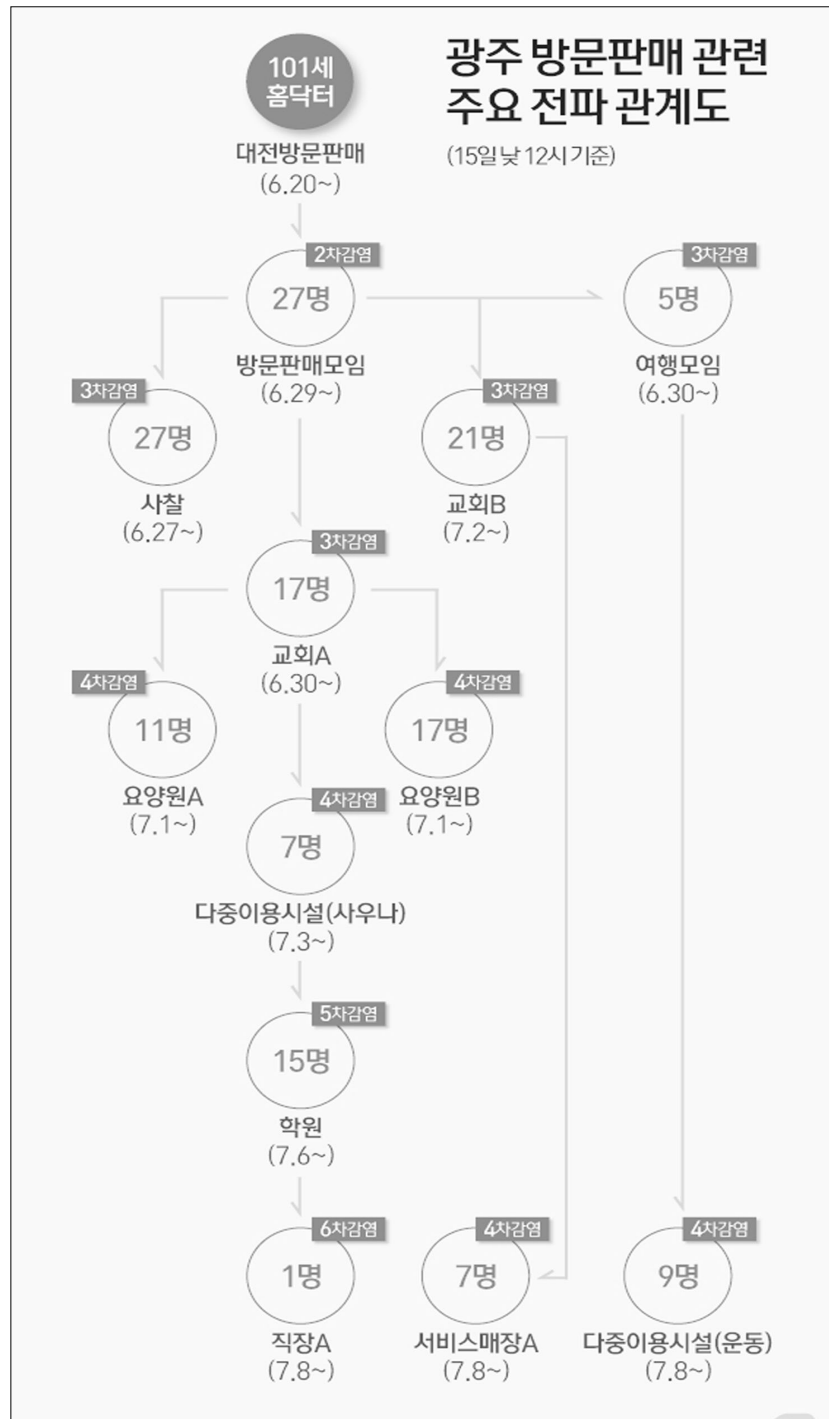
다른 교회(17명)로도 불통이 튀면서 요양원 두 곳(11명, 7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해당 교회로부터 사우나(7명)와 학원(15명), 다른 직장인 1명으로 연쇄감염이 발생했다. 아울러 여행모임(5명)에도 바이러스가 전파된 후 베드민턴 클럽(9명)으로도 퍼졌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방문판매 관련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대화할 때 벗는 등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그 상태로 일명 '뺏다방' 등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체류하거나 제품 체험, 정보공유 목적으로 빈번한 소규모 모임을 실시했다"고 감염원인을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증상이 있음에도 사우나나 실내집단 운동시설 그리고 병원 등을 방문해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됐다"고 덧붙였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판매업체 관련 사업설명회, 홍보행사 참석을 자제해달라"며 "불요불급한 소모임은 취소하고 외출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봉우 기자



시내버스 교통사고 잇따라...10명 부상

충북 청주에서 버스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0명이 다쳤다.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42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모닝이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운전자 A씨(24·여)가 안면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버스 승객 3명 중 2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시내버스 기사 B씨(61)가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 직진하는 모닝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3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교차로에서 좌석버스가 1톤 화물차와 충돌 후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등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의붓딸 앞에서 아내 방화살해 60대, 징역 25년

이혼을 요구하던 재혼 아내를 '방화'라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5일 살인 등 혐의에 구속 기소된 이모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5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한 사실오인과 법정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살해'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범행은 중대하고 수법 또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보인다"며 "딸은 어머니가 숨지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큰 충격과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여전히 유족들은 법원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통방서 여학우 성희롱한 남학생들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우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주고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 측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부산의 A대학교는 학생상담지원센터와 대학 성윤리위원회를 4차례 개최해 '단체대화방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대학교 익명게시판에는 단체 대화방에서 남학생들이 갖은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일삼고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공유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을 작성한 여학생 B씨는 "저희는 피해를 입은 입장이지만 매일 이 일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밤에 대해 공부하고 증거를 모았다"며 "발을 주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과정"이라고 호소했다.

B씨가 게시글과 함께 일부 공개한 단체 대화방 대화록에는 '클럽 가서 xxx 흔들고', '연애 한번 안 해본 xxx'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발언들이 다수 들어있다.

이후 공분이 일자 학교 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남학생 대부분이 문제가 된 행동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서 여성 신체 촬영한 공무원 직위해제

경기 성남시가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직원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한데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공직 사회에 더 높게 요구되는 도덕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자들을 비롯해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 비위행위로 그 정도가 중대하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3(직위해제)에 의거 15일자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 13명 고발...“관리 강화”

구호물품 지속 지원 위반시 고발조치 등 엄정 대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2차 집단감염 발생 이후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속출하자 관리를 강화한다

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자가격리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총 13건 발생해 모두 고발 조치했다.

조치 내용은 수사종결(혐의없음) 2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광주지검 기소의견 송치 8건, 수사 진행 중 3건 등이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급증하는 자가격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처에 맞춰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선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자가격리자와 전담공무원 배정 비율을 1대 1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원반 가동·전담공무원 예비인력을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확보하도록 했다.

또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통한 자가진단서를 1일 2회 제출하고, 1회 불시 유선통화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6~7일 시·자치구·경찰 합동 야간 불시점검을 시작으로 이후 자치구와 경찰 합동 현장점검도 주 4회 이상 진행중이다.

아울러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격리 수칙 준수가 느슨해지지 않

도록 자치구별 주 2회 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체온계·마스크·손소독제·관급봉투 등이 들어 있는 의료키트와 식료품·생활필수품 등 구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자치구 보건소에서 관할 경찰서 협조를 얻어 소재지 파악, 격리조치 이행, 즉시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시는 추가 확진자 발생시 행사 고발, 방역비용과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이슬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